

당뇨병 환자에서 동반된 비당뇨병성 신질환의 임상 양상 고찰

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, 병리학교실*, 신장질환 연구소

이승철 · 박정탁 · 유태현 · 김형중 · 홍순원* · 정현주* · 최규현 · 이호영 · 한대석 · 강신욱

배 경 : 당뇨병 유병기간이 10년 이상인 환자에서 발생한 신질환의 경우 당뇨병성 신증의 가능성이 높아 신조직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나 외국의 후향적 연구에 의하면 당뇨병 환자의 12-81%에서 비당뇨병성 신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. 당뇨병 환자에서 단백뇨와 혈뇨가 동반되어 있을 때, 당뇨의 유병기간이 짧을 때, 신부전증이 급속히 진행될 때, 그리고 망막병증이 동반되어 있지 않을 때 신조직 검사의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많은 실정이다. 이에 본 연구자 등은 당뇨병 환자에서 동반된 비당뇨병성 신질환의 임상양상과 이의 예측인자를 알아보기 위해 당뇨병 환자 중 신조직 검사를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적 및 병리조직학적 소견을 분석하였다.

방 법 :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1994년 1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신조직 검사를 시행한 20세 이상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연령, 성별, 당뇨 유병기간, 혈압, 24시간 뇨단백 배설량, 혈뇨의 유무, 당뇨병성 망막병증 및 신경병증 유무, 그리고 신조직 검사를 시행한 이유와 결과를 분석하였다.

결 과 : 대상 환자는 총 56명으로, 평균 연령은 54.0 ± 2.1 세, 남녀 비는 1.1:1이었고, 평균 당뇨 유병기간은 6.7 ± 1.1 년이었다. 신조직 검사를 시행한 이유로 혈뇨의 동반이 14예 (25.0%)로 가장 많았고, 심한 단백뇨의 돌연한 발생 13예 (23.2%), 비교적 짧은 당뇨 유병기간 13예 (23.2%), 급속한 신기능의 악화 10예 (17.9%), 그리고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부재가 5예 (8.9%)이었다. 병리학적 소견은 당뇨병성 신증이 20예 (35.7%)로 가장 많았고, 막성 사구체신염 9예 (16.1%), 미세변화 질환 6예 (10.1%), 그리고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경화증 5예 (8.9%)이었다. 대상환자를 당뇨병성 신증군 (20명, DN군)과 비당뇨병성 신질환군 (36명, Non-DN군)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, 양군간에 연령, 성별, 혈압, 혈청 크레아티닌, 알부민, 총 콜레스테롤, 당화 혈색소, 24시간 뇨단백 배설량, 그리고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유무에는 통계학적 차이가 없었다. 그러나, 당뇨 유병기간은 Non-DN군이 4.5 ± 0.9 년으로 DN군의 10.3 ± 1.3 년에 비해 유의하게 짧았으며, 혈뇨를 동반한 환자는 Non-DN군에서 72.2% (26/36)로 DN군의 20.0% (4/20)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다. 또한,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동반한 환자는 Non-DN군에서 53.8% (7/13)로 DN군의 93.3% (14/15)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적었다.

결 론 : 신질환이 의심되는 당뇨병 환자에서 당뇨병 유병기간이 짧거나, 혈뇨가 동반되거나,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없는 경우 비당뇨병성 신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.